"콘텐츠 난해성은 해소… 광주 정체성 부족 아쉽다"

■ 문화전당 콘텐츠 세미나

개관 첫해 공연 너무 많아
지역경제 살릴 방안 담자

16일 오후 광주시 동구 아시아문화마루에서 열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를 위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지적됐던 콘텐츠의 난해성이 많이 해소됐으며, 구체성 등도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과도한 개입, 전당조직과 광주시의 비협조, 홍보방안 미흡, 과도한 공연 프로그램 등은 개선해야할 점으로 지적됐다.

이날 '문화전당 콘텐츠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천득염 전남대 교수는 "문화전당을 채울 콘텐츠들이 구체성을 가지고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만큼 (광주) 지역민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천 교수는 다만 "전체적으로 전시와 공연에 대한 집중도가 과해 '난삽(難澁)'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라면서 "개관 첫해 공연으로 80개를 한다고 하는 데 그 절반만 했으면 하고, 그거라도 잘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천 교수는 또 "이번 콘텐츠를 보면서 전당 조직과 광주시와의 관계가 아직도 평행선을 달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 아쉬웠다"며 "유기적인 관계 설정을 통해 광주시에서 희망하는 전당 사업의 산업화, 즉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콘텐츠에 담아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역 정체성이 빠진 콘텐츠는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를 주제로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성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은 "5·18을 중심으로 한 광주의 정체성을 담아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 아시아 문화전당 5개원별 주요 콘텐츠

1 아시아 예술극장

- 창작·제작 중심의 아시아 컨템포러리 공연예술센터
- 문화전당 개관작품 아이웨이웨이와 제작 추진
- 아시아지역 주목할 만한 공연 연 80회

2 문화창조원

- 예술·과학·인문학이 융합된 아시아 문화 창조자들의 집
- 백남준 비디오 아트 탄생 기념 '음악의 전시-전자 텔레비전'
- 고흐·달리·마네 전 등 7개 전시 준비

3 아시아문화정보원

- 아시아문화 연구하고 자원을 수집하는 기능
- 조형상징·의례·의식주 등 동시대 아시아 문화 연구
- 연구소·자원센터·아카데미로 구성

4 어린이 문화원

-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문화공간
- 신기하고 지혜로운 아시아 문화 탐험·직접 체험
- 2015 광주 하계 U 대회 기념 어린이 스포츠 엑스포

5 민주평화교류원

- 민주·인권·평화 교류 프로그램 추진
- 5·18 10일간의 이야기 예술로 승화시킨 22개 전시
- 아시아문화장관 회의 개최,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 개최

김 처장은 "문화전당은 광주와 한국, 아시아를 연결하는 것으로, 지역의 정체성이 빠지면 혼이 빠지는 것"이라며 "왜 5·18의 현장인 (구)전남도청 자리에 문화전당이 들어서는 지를 고민해 보고, 5·18의 정신이 담기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조 발제에 이어 패널 토론회에 참석한 김명중 호남대 교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최고 수준의 콘텐츠를 제작하더라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흥행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행정가들의 과도한 개입을 경계하기도 했다. "이번 콘텐츠의 경우 행정의 논리와 예술의 감성이 부딪히면서 태어난 것으로 보였다"는 김 교수는 "행정가와 예술가는 사용하는 뇌가 다르다. 이제 구체적인 구도가 나왔으니 전문성을 갖춘 예술가만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에게 콘텐츠 제작을 맡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류재한 전남대 교수도 "전당이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바뀌어 가는 듯 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전당은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엔진이 돼야 하는데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 콘텐츠를 만들어 장착시키는 데만 최소 3~5년이 걸리는 만큼 하루빨리 완벽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영준 광주MBC 보도위원은 "500석밖에 안 되는 중극장에 오페라를 유치한다는 등의 계획이 있던데 경제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한 뒤 "광주시와 협력을 통해 시민의 소득과 연계시키는 콘텐츠 개발 등도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 문화전당 이색 콘텐츠

'아시아 도시 파빌리온' 13개의 전시 공간 여행하듯 이동

문화전당내 5개원의 속을 채울 콘텐츠의 윤곽이 드러났다. 주요 이색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아시아예술극장**=개관 첫해인 2015년 대극장 공연(30여편)으로는 인도네시아 가린 누그르호의 아시아 현대 오페라와 일본 오카다 토시키의 보컬 로이드 오페라, 중국 탄듄의 음악 콘서트 등이 자체 제작돼 무대에 올려진다. 연간 30여편이 공연되는 중극장에서는 태국 피쳇 클런천의 왕실 전통무술을 주제로 한 연극과 일본 연극계의 차세대 주자인 일본 타쿠야 무라카와의 연극 등이 자체 제작 방식으로 공연된다.

◇**문화창조원**=7개의 전시를 선보인다. 상설전시 공간에선 '아시아 도시 파빌리온(가칭)'이 열리는데, 13개의 전시 공간을 여행하듯 이동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2년마다 교체된다. 안젤름 프랑케 등 세계 유수의 큐레이터가 기획·제작에 참여한다.

'다시보는 특별 전시(리바이벌전)'에서는 1950년대 이후 아시아 관련 국내외의 대표전시를 리바이벌 한다.

◇**아시아문화정보원**=아시아 문화를 연구하고 자원을 수집하는 기능을 맡게되며, 아시아문화연구소와 아시아문화자원센터, 아시아문화아카데미로 구성된다. 아시아문화연구소는 조형 상징·예술, 의례·공연예술, 의식주, 이주·정착 등 5개 영역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자료 수집을 맡는 아시아문화자원센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출판물과 공연, DVD 등 방대한 자료를 수집·관리한다. 아시아문화아카데미는 문화기획자와 전당 인력 양성 등을 맡는다.

◇**어린이문화원**=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미니전당이다. 해외 주요 어린이박물관 초청 전시와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전시회도 열린다.

어린이극장에서는 아시아 이야기를 소재로 한 공연과 아시아스토리페스티벌, 어린이책축제 등 다양한 축제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또한 문화콘텐츠 창작, 예술탐구 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내외 학교와 어린이 기관에 보급한다.

◇**민주평화교류원**=광주민주화운동의 마지막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활용한 민주인권평화기념관에서는 80년 5월 당시 10일간의 이야기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22개의 전시를 선보인다. 아시아문화장관회의가 개관에 맞춰 열리고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 등도 개최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부러워"

김은영의 '그림 생각'

김주호 작 '같이 노래해요'

(48) 조용필

지난 주말 광주 풍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조용필 콘서트에 다녀왔다. 가왕(歌王)의 신곡 '헬로우'로 시작한 콘서트는 3시간 내내 1만5000 여 명 관중들을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 와있게 하는 듯 행복한 감흥에 젖게 했다.

조용필의 팬들은 형광봉을 하나 둘씩 들고 흔들며 목이 터져라 노래를 따라 불렀다. 거의 유일하게 그의 열창을 조용히 감상하기만 했던 나는 비로소 '귀로에서' 노래방 생각이 간절했다. 30여년이 넘은 광팬임에도 콘서트에서 함께 따라 부르지 못한 여운을 노래방에서 혼자 달래며 이 가을을 갈무리하고 싶어졌다.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조각가 김주호(1949~)의 작품 '같이 노래해요'를 보면 합창하는 즐거움이 전달된다. 작품 속 얼굴은 노래를 썩 잘 부르지는 못하고 소리만 빽빽 지를 것 같은 모습이다. 노래도 잘하지 못하면서 조용필의 노래만 애창하는 나의 모습인 것 같아 웃음이 나온다. 작가도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기에 노래방에서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고 작업했다고 한다.

작가는 우리 시대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삶에 대한 여유와 낙관을 어눌한 듯 비례도 무시한 3등신의 몸집으로 담아내면서 한국미의 특성이라 할 '무기교의 손맛'을 정감있게 발휘해오고 있다. 특히 불에 굽는 질구이 작업을 통해 우리의 따스한 체온처럼 느껴지는 불그스름한 색깔을 표현해 친밀함을 더한다.

조용필은 가왕이라지만 그의 노래는 왕처럼 군림하지 않는다. 친근하게 우리 마음에 다가선다. 조용필의 노래 분석으로 학위를 받은 언론인 홍호표박사가 저서 '조용필의 노래, 맹자의 마음'에서 언급했듯이 "단지 유행가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천인합일(天人合一)과 같은 인간 본성을 노래"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日日萬評

- 김종두

死卽生?! 生卽死?!

시원하고 깨끗한 소리 - 소리샘보청기

microtech the easy choice

SORISEM 소리샘 보청기

소리샘보청기 창립 20주년 기념

보청기 대축제

2000만원의 경품을 잡아라~

귀가 답답하시다구요?
지금 당장, 소리샘보청기 전국가맹점에 문의하세요!
☎ 1588-2008 www.sorisem.co.kr

무료배포
지역 센타로 전화를 주시면 "보청기 구입전 알아야할 상식" 책자를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 광고심의필: 심의번호 2013GN1140099
* 제조원,수입원: (주)스타키코리아

① 1등: 500만원대 고급형 보청기(3대)
- Sound Lens 110-안보이는 고막형 보청기
- Focus 50XP-고급 맞춤형 보청기
- WI Series 110-무선 맞춤형 보청기

② 2등: 고급형 보청기(3대)
- XINO TINNITUS 90-이명 보청기
- ARIES PRO-맞춤형 보청기
- XPERIA-기성형 보청기

③ 3등: 보청기 할인쿠폰(참가자 전원)
- 보청기 배터리 할인 쿠폰
- 보청기 수리비 할인 쿠폰
- 보청기 구입시 30~50% 할인 쿠폰

■ 참가방법: 〈소리샘 보청기〉 인터넷홈페이지 www.sorisem.co.kr 에 방문하셔서 보청기대축제 경품행사에 참여 하시면 됩니다.
■ 행사기간: 2013년 8월 1일~10월 31일 까지
■ 경품 교환장소: 소리샘 지역 센터 (경품 수령시 제세 공과금은 없습니다)

소리샘보청기 모델 뽀빠이 이상용

고급형 보청기도 타고, 할인 쿠폰도 받고!
〈소리샘 보청기〉 창립 20주년 기념 보청기 대축제-

〈소리샘 보청기〉에선 창립 20년 동안 보내 주신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2000만원 규모의 경품과 보청기관련 할인 쿠폰을 준비하여 보청기 대축제를 개최 합니다. 소리샘보청기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경품당첨의 행운을 누리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소리샘보청기 가맹점 문의 02-499-7300

호남권 ●광주남구센터 062-673-8070 ●광주동구센터 062-234-5853 ●목포센터 061-284-4815 ●순천센터 061-744-5013 ●익산센터 063-841-1149 ●고창센터 063-561-0603 ●여수센터 061-684-2800

서울권 종로센터 02-2269-9911 / 강남센터 02-572-6662 / 대림센터 02-858-2750 / 중랑센터 02-744-7558 / 홍제센터 02-725-5869 / 강서센터 02-2658-0023

경기권 강북센터 02-945-2393 / 구리센터 031-555-2700 / 평촌센터 031-388-5666 / 부천센터 032-322-7782 / 수원센터 031-252-3992 / 동인천센터 032-764-1411

경기권 남인천센터 032-421-0001 / 파주센터 031-946-6464 / 분당센터 031-704-5255 / 일산센터 031-923-9339 / 강화센터 032-933-2565

강원권 원주센터 033-743-0533 / 강릉센터 033-641-8129 / 춘천센터 033-243-9969 / 동해센터 033-532-4171 / 횡성센터 033-344-5233

충청권 대전중앙 042-931-4121 / 대전중구 042-221-4260 / 금산센터 041-754-8484 / 괴산센터 043-832-2364 / 진천센터 043-536-6003 / 청주센터 043-225-0038

영남권 대구성서 053-526-9555 / 대구중구 053-253-6868 / 마산센터 055-245-7898 / 부산서면 051-816-9771 / 진주센터 055-741-1252 / 김해센터 055-324-2789

영남권 창원센터 055-288-8088 / 울산센터 052-269-2900 / 고성센터 055-674-7030 / 장유센터 055-331-3665 / 창녕센터 055-533-9022 / 진주거성 055-755-5668

제주권 제주센터 064-753-5347